

◆며느리권씨 일전 5

## 영천이씨 농암 이현보의 어머니와 부인 권씨

모친은 권겸(權謙)의 딸(중윤공파 21세), 부인은 권효성(權孝誠)의 딸(검교공파 18세)



낙동강 건너편 한속당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농암종택. 안동댐 수물로 분천에서 현재의 가슴으로 옮겨졌다.

인간은 누구나 돈, 권력, 장수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옛날 벼개모에도 '수복강녕(壽福康寧)' 네 글자를 써놓고 그것을 소원한다. 그러나 이 권리, 재물, 장수의 삼박자를 다 가지기는 어렵다. 하나에 힘쓰면 하나가 망가지는 게 세상상 이치이다. 물론 고대에 월나라 구천(句踐)처럼 이를 다 누리는 사람도 어찌다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농암 이현보(農巖 李賢輔, 1467년 8월 28일, 음력 7월 29일 - 1555년 7월 1일, 음력 6월 13일)는 높은 관직과 장수와 존경을 받으며 살다 간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그의 어머니와 부인이 안동권씨라는 것이다. 조선 중기까지는 동성동본 금호도 없어서 권씨 집안끼리 혼매 관계가 이뤄져 권씨 며느리와 사위도 족보에서 종종 눈에 띠는 걸 볼 수 있다. 이 이현보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증손녀뻘 할렬이니 이 또한 흥미꺼리이다.

## 장수가 개인 친가와 외가

가계를 살펴보면 외할아버지(權謙)의 93세를 필두로 농암 본인이 89세, 아버지 98세, 어머니 85세, 숙부 99세, 조부 84세, 조모 77세, 증조부 76세, 고조부는 84세를 살았다. 외가는 외숙부 93세에 사촌이 85세. 또 농암의 두 동생은 91세, 86세를 살았으며 아들은 문량 84세, 계량 84세 등 평균 76.5세를 살았다. 조카들도 71세, 89세에 있다. 농암 집안은 7대 200여년간 평균 연령이 80세이니 요즘 100세 시대에도 드문 일이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인 조선 초기의 기록이다. 조선을 통틀어 이보다 더 장수한 집안은 아마 없을 것이다.

현재 농암종택을 지키는 종손도 부친은 91세. 모친은 89세를 살았다고 하고 조부만 장티푸스로 27세에 세상을 떠났다니 장수(長壽)는 이 집의 내림이다.



농암종택 전경과 농암바위, 선조가 내린 '적선' 어필

이유는 물론 이런 친, 외가의 우월한 장수 유전자를 들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역시 그 여유롭고 낙천적인 성격에 있다. 그의 호(號)인 농암(農巖)은 말 그대로 '귀여거리 바위'이니 지금도 '귀여거리'로 남아 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위처럼 단단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 화려하고 값진 은퇴식

그가 벼슬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가



조정에서 스스로 물러날 때 종종이 하사한 것으로 전해지는 관복 띠인 금서대.

농암은 돌아오는 배 안에서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본따서 '효빈가(效嘲歌)'를 짓는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말뿐이오 간 사람 없어/ 전원이 황폐해지니 아니 가고 어찌할꼬/ 초당에 청풍명월이 나며 들며 기다리나니."

## 귀여거리 바위에 만민평등과 효절의 철학

낙향한 농암은 귀여거리에 올라 다시 노래 한 수를 읊는다. '농암가'다.

"농암에 올라보니 노안이 더욱 밝아지는구나/ 인간사 변한들 산천이야 변할까/ 바위 앞 저 산 저 언덕 어제 본듯하여라."

농암은 그때부터 농부로 자임하며 담백한 생활을 실천한다. 그리고는 시를 읊는다.



농암 이현보 초상 보물 872호 유훤상인(玉僕上人) 작품이고 옆은 현대 우용곡 화백의 복식 그림이다.

분강의 강기를 두건을 비스듬히 쓰고 거닐면서 강과 달과 배와 술을 벗 삼았다. 동료·후배들과 어울린 감흥은 '강호문학'이 됐다. 명예욕은 없었다. 출세나 벼슬에 연연하지 않은 자유인이다 풍류객이었다. 그렇다고 농암이 모든 걸 다 놓은 건 아니었다. 부모에 대한 효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적선(積善)만은 더 '집착'했다.

"사람을 대접함에 빈부구천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1519년 안동부사로 있을 때 안동부의 80세 이상 노인을 한자리에 초청해 경로잔치를 여니 '화산(花山)양로연'이다. 당시 행사는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 여자와 천민까지 불렀다. 그림에 보면 여자들이 상석인 집안에 앉아 있고 남자들은 천막을 친 아래에 앉아 대접을 받는다. 퇴계는 농암의 행장에 "자제와 노비를 편애하지 않았고 혼사도 문벌집안을 찾지 않았으며, 사람을 대접함에 빈부구천을 가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농암의 박애정신은 신분사회에 장벽마저 넘어선 것이다. 농암의 이런 경노, 효행은 후일 선조 임금이 농암 가문에 '적선(積善)'이라는 글씨를 하사하는 계기가 된다. 1533년 농암은 애일당(愛日堂)에서 아버지를 포함한 아홉 노인을 모시고 다시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니 67세였던 농암이 중국의 전설적인 혜자 노래자의 헌도를 실행한 것이다. 이를 얼마 전 안동시장(구영세)이 이어받아 자신이 때때옷을 입고 행사를 했다니 의미 깊은 것이다. 그리고는 이를 '애일당구로회(愛日堂九老會) 구경첩(具慶帖)'와 현재 고택체험에서의 경강장수법상

농암 이현보가 종종 22년 승정원 동부승지(대통령비서실장 카석)가 돼 집에 돌아올 때 모친 권씨가 이 노래를 지어 여종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다. 높은 관직에 오른 아들을 맞는 어머니의 기뻐하는 마음이 실감나게 표현돼 있다. '선반'은 정원 관원들의 조석공양을, '대명전'은 개성에 있는 궁궐을 말한다.

농암의 어머니, 즉 권겸의 딸도 상당히 훌륭하고 낙천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85세의 수를 누렸다.

천정 계보는 남편인 이흡(李鉉)은 현감(면장급)

이고 부친은 권겸(謙) 20·권구령(龜齡)·창덕궁녹사,

6품 호조참의(추증) 19·권이(彝)·고려생원, 좌통례

추증 종3품급) 18·권희봉(希逢, 낭장, 정6품) 17·권

연(璵, 중헌대부, 정2품) 16·권성우(成祐, 좌우위보

수중장관) 15·권비(備) 14·권천(闡) 13·권대진(大

眞) 12·권직유(迪猷) 11·권수원(叔元, 중윤공 지방

토호(파조) 10·권위평(位平, 인영교위, 9품) 9·권정

간(貞幹, 호장동정, 면서기급) 8·수(守, 호장교위) 7·

방장교) 7-06-05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략 보면 하급 무관이거나 지방의 장교급인 무골(武骨)이 대부분이다. 중윤공파도 대략 그런 편이다.

그리고 이현보의 부인은 수를 누렸는지 알 수 없으나 그녀는 '권씨족보'에서 본 집안 계보는 이렇다.

이현보(李賢輔) 18세(사위) - 권효성(孝誠, 중순위, 군인) 17·권유랑(有良, 현감 면장급) 16·권서

(曙, 철원부사 세종 사냥시 현지 보좌) 15·권정(定,

여유 5) 지극한 효심과 베풀기이다.

그러면 그의 모친 권씨는 어떤 분인가? 부친 즉 농암의 외조부인 권겸(權謙)은 전사가 되고 관직은 성균관전적(정6품)까지 올라갔지만 수양대군의 단종 폐위사건 이후 선성(예안)으로 낙향, 북쪽으로 바라보면 충절을 지키다가 갔다. 성품이 질박, 운후하고 너그러웠다고 하니 그 또한 스트레스와는 거리가 먼 분이었다. 후에 노인호군, 가선대부 후조참판 등의 증직을 받지만 그것은 그와는 무관하다.

## 호방한 외가 권씨네의 딸 어머니와 아내

권겸의 딸이며 이현보의 어머니인 권씨가 아들 혜보가 벼슬을 하자 지어서 불렀다는 가사가 있다.

## 선반가

먹기도 좋을시고 승정원(承政院) 선반(宣飯)이여!

(미디도 허흡사 승정원 선반야)

놀기도 좋을시고 대명전(大明殿) 기습이여!

(노디도 허흡사 대명전 기습가)

가기도 좋을시고 부모께 가는 길이여!

(가디도 허흡사 부모다하길 길하야)

농암 이현보가 종종 22년 승정원 동부승지(대통령비서실장 카석)가 돼 집에 돌아올 때 모친 권씨가 이 노래를 지어 여종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다. 높은 관직에 오른 아들을 맞는 어머니의 기뻐하는 마음이 실감나게 표현돼 있다. '선반'은 정원 관원들의 조석공양을, '대명전'은 개성에 있는 궁궐을 말한다.

농암의 어머니, 즉 권겸의 딸도 상당히 훌륭하고 낙천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85세의 수를 누렸다.

천정 계보는 남편인 이흡(李鉉)은 현감(면장급)

이고 부친은 권겸(謙) 20·권구령(龜齡)·창덕궁녹사,

6품 호조참의(추증) 19·권이(彝)·고려생원, 좌통례

추증 종3품급) 18·권희봉(希逢, 낭장, 정6품) 17·권

연(璵, 중헌대부, 정2품) 16·권성우(成祐, 좌우위보

수중장관) 15·권비(備) 14·권천(闡) 13·권대진(大

眞) 12·권직유(迪猷) 11·권수원(叔元, 중윤공 지방

토호(파조) 10·권위평(位平, 인영교위, 9품) 9·권정

간(貞幹, 호장동정, 면서기급) 8·수(守, 호장교위) 7-

방장교) 7-06-05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략 보면 하급 무관이거나 지방의 장교급인 무골(武骨)이 대부분이다. 중윤공파도 대략 그런 편이다.

그리고 이현보의 부인은 수를 누렸는지 알 수 없으나 그녀는 '권씨족보'에서 본 집안 계보는 이렇다.

이현보(李賢輔) 18세(사위) - 권효성(孝誠, 중순위, 군인) 17·권유랑(有良, 현감 면장급) 16·권서

(曙, 철원부사 세종 사냥시 현지 보좌) 15·권정(定,

사복재 고려총신, 절의파, 태종의 장관 총장 제의 거질) 14·권현(顯, 부사 시장급) 13·권수영(秀英, 중랑장 대위급) 12·권열(烈, 예빈동정 6품) 11·권척(倜, 겹교대장군 파조) 10·권춘각(椿格) 9·권백서(伯西) 8·권진평(進平) 7·권진부(珍夫) 6·권공황(公晃) 5·권응화(應和) 4·권윤(允) 3·권인행(仁幸) 2·권행(始祖)

여기서 이현보 부인의 집안도 대체로 무인계열에 활동적이고 물욕이 없는 장르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다. 원래 겹교공파가 파조부터 강직한 무골이다. 농암과 권씨부인 사이에 8남이 존재하니 이 또한 엄청난 일이다. 이석량(碩頤), 이문량(文樞, 철방, 84살), 이희량(希樞, 현감, 65살), 이중량(仲樞, 문과 감사, 79살), 이계량(季樞, 직장, 83살), 이윤량(潤樞, 내의원 판사, 74살), 이숙량(叔樞, 74살), 이연량(衍樞)인데 전부 '대들보량(樞)'을 쓰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대체로 후손들은 문과 계열에 이윤량은 내의원의 사이고 높은 벼슬은 별로 없다. 그러나 다 장수했다.

## 농암과 퇴계 그 공경과 담백한 교유

그리고 이퇴계와 이현보는 35세의 나이 차이가 나지만 외가로 7촌간이다. 농암 이현보는 어린 퇴계를 공경하면서 서로 학문을 논하고 서울에서는 잠깐 같이 공직에 근무한 적도 있다. 퇴계의 부인 또한 권씨이고 시청 앞 구 대법원 자리가 그의 집이고 권씨가 거기서 출산 중 사망하였다.

농암 이현보의 서세에 한참 50대 중반의 원숙한 퇴계는 그를 위해 만사(輓詞)를 지어 애도한다. 그 행장에 "... (공은) 남을 위하는 데는 부지런하고 자기를 위하는 데는 서툴렀다"고 적었다. 그리고 농암 사후에 퇴계는 다시는 그 농암과의 정의(情誼)가서린 분원(汾川)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고 한다. 세대를 넘어선 두 사람의 우의는 후대의 모범이라 아니할 수 없다.

농암문집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글이 많고 특히 농암의 셋째아들과 퇴계는 같은 고시 동기(科擧)이고 농암과 퇴계의 숙부가 또 고시 동기 이기도 하다.

그 중 '농암문집'에 실린 한 컷 농암의 서신을 보자.

## 퇴계의 모사에 모여 마시고 차운하다

[奉賡退溪茅舍會飲]

와보니 뜻집이 두어 칸이로다.

울타리 가에 그을자리는 화려한 자리가 되었다.

좌석은 민주(賓主)로 나누어 높은 모임이 되었고, 술잔은 존비(尊卑)에 고루하여 주선을 만들었다.

이미 전날 밤 진술하게 마음을 감사하고 재차 시율(詩律)에 모두 노전(盧前)을 보았지.

(다음호에 계속)

## 구계(龜溪)를 찾아서(2)

권재중(權在重, 38세, 시중공파 회천군종중)

관련 부분의 내용이다.

덕동리는 본래 제천군 서면 덕동리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배운면 덕동리로, 1980년 제천군이 시로 승격되자 제원군 배운면 덕동리로, 1995년 시군통합에 따라 제천시 배운면 덕동리가 되었다.

구수애에서 상학동까지 6km에 걸쳐 집들이 산재되어 있는 덕동리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인구는 142명, 가구 수는 77가구, 마을면적은 2